

# 경계 벗어나니 참마음 빛나네



◇금릉봉곡사연못가의 석상

은 듯 말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례한 짓이나?" 이항복이 말했다.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뭘 묻고 싶은 게나?" 이항복이 물었다. "방 안에 있는 팔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뇨, 그야 네 몸에서 뻗은 팔이니 네 것이 지 누구꺼여?" 이항복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런데 담 너머 은 김나무 가지는 왜 아집 것이라구 우깁니까?" 권철은 할 말이 없어서 하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오성의 지혜에 감탄했다는 옛 이야기다.

그런데, 난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팔이야 오성의 몸이 한 줄기니까 당연히 오성의 것이지만, 나무야 오성의 몸 안에서 담 너머로 넘어갔다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무의 것이지, 그게 왜 오성이나 권철 대감이 네껏 내것 해야 할까? 우리 인간은 매사에 이렇다. 입자 없는 것(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세운 먼저 갖는 사람이 제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권념과 욕망은 집요하고 끝이 없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도 이런 뽕따 먹기의 욕망 아닐까? 땅은 그냥 땅일 뿐인데-

난 사람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이 쓰는 사랑이란 말은 다분히 소유와 지배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묻는다. "당신 나 사랑해?" 명칭이 같은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러자 방금 전까지 상냥하던 여자는 서슴이 퍼져서 툴툴거리면서 노발대발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를 기어코 떠나가 버렸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란 감정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장사처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이란 장사를 한다. 내가 한 개를 주고 한 개 비 이상을 받아야 사랑의 욕

어수룩하지만 포용력 있고  
좀 밀지는 듯 사는  
'고향같은 사람' 만난다면  
더불어 사는 맛 날텐데...

망이 충족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을 소유의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엔 무척 따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덩달아 으쓱해져서 법률을 전공할까 해 본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좀 밀지는 듯한 인성이 아름다워 보인다. 내 것을 조금씩 조금씩 뜯겨가 면서도 즐거워하는 인성이 참 부러워 보인다. 약속은 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열내는, 아주 자기편엔 정확히 신다는 사람이 있다. 좋지. 맞다. 나도 예전엔 그러고 싶었고, 그것이 진짜 멋진 인생인 줄 알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좀 어수룩해도 사람의 잘못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보다 더 좋다. 내 마음이 무디어진 것일까? 아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과나무'까지는 아닐지라도,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사람이 '고향같은 사람'으로 언제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만나도 만나도 실증되지 않는 흐릿한 사람인 걸 나는 깨닫는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여러 사람과 어느 시골로 촬영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악목이 귀하다고 하면서, 집의 정원에 울거 심어 키우겠다고 길 옆에서 평화롭게 잘 자라고 있는 옥나무를 무량하게 속 뜯아 비닐 봉지에 쑤셔넣고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파렸는지 모른다. 왜 인간은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것일까? 결망과 비리때도 없이 저승길에 들어서는 인간의 생명인데.

心若菩提 心即是道  
수려無境 真心獨照  
마음이 경계에 붙들리면  
마음이 곧 미망에 빠지나  
이제 이미 경계가 없어지니  
참된 마음이 홀로 빛을 비치네.

전생(사건기)

## 감성으로 보는 권

### <15> 탈속의 선승-연못가의 석상

나가 아는 어떤 본의 집 뜰 안에 김나무가 있는데, 몇 년 전 김이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린 적이 있었다. 워낙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본은 탐스런 김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겸 나눠 주곤 했는데, 어느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나무에 주렁주렁 달렸던 김이 꼭징이만 몇 개 남고 모조리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둑이 들어와 김을 몽땅 다 간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 주기로 큰소리쳤던 악목이 부도수표가 되버려 민망해 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김나무 이야기가 오성과 함윤의 이야기도 있다. 오성이 한 양 집에 올라와 쉬고 있는데, 뒤뜰의 김나무에 김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매일 탐스런 김을 한 바구니씩 따는데 이상하게도 하인들이 담장 너머의 김을 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성이 하인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열집이 병조참의 권철의 집인데, 그 하인들이 담 너머 온 그 쪽 울안의 김나무 가지에서 열린 김은 자기네 울안에 있는 것이니 자기네 김이라고 우기며 따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치와 슬기가 뛰어난 오성은 열집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사랑방 장지문 창살 안으로 오른팔을 댈라 질러 넣었다. 꾀팍 놀란 권철이 호통을 쳤다. "아니, 쉰 놈이나? 쉰 놈이 방안으로 주먹을 박어?" 오성이 태연스럽게 말했다. "이웃집 사는 이항복입니다." "이항복? 그러면 관서덕 자체가 아니냐?" 이항복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는 권철은 다소 겁 먹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한글대장경을 봉안해 경전 읽는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찰과 불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4점의 한글대장경을 봉안한 안성 도피안사의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운동 모습.

## 1인 1권 보시... 번지는 법보 봉안 한글대장경 보급 '경전읽기 신행' 불붙여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봉안하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경전 읽기 신행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권 318권을 사찰에 봉안해 신도들이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이 늘고 있는 것.

안성 도피안사주지 승양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불자 1권의 한글대장경 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9월 2일 우련본절까지 1200여명 이상이 동참했다. 도피안사는 한글대장경에 동참불자 개인의 이름을 기록해 사찰에 '권불'을 모시듯 법보를 모시는 방법으로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전개했다. 특히 도피안사는 자신이 모신 한글대장경을 2개월 간 집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 불자들이 경전을 통해 신심을 다지는 기회를 삼았다.

군산 관음사주지 재관도 법당에 한글대장경 1집을 봉안했다. 가족단위 또는 개인별로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에 동참토록 했으며 동참한 불자들은 언제나 법당에 봉안된 대장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관음사는 지난 7월부터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전개해 9월 11일 한글대장경봉안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용화사(주지법준)도 8월부터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시작 현재 불자들의 동참을 접수 받고 있다. 용화사는 지속적으로 봉안불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지원장 혜은)과

울산지원(지원장 혜안)도 신행 소모임과 뜻있는 신도들이 대거 동참해 한글대장경과 장경각을 함께 봉안했다.

한글대장경은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가장 훌륭한 시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구미 죽림사 주지 해관 스님은 최근 한 신도로부터 한글대장경 1집을 시주 받았다. 한글대장경 구입을 희망해 오던 해관 스님은 "법보를 받는 것보다 큰 시주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 귀중한 법보를 장경각에 모셔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들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도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여성 불자는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경전을 시주하는 것은 절을 지어 드리는 것만큼이나 값진 불사라는 생각으로 3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매월 일정액을 모아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한글대장경을 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동국역경원과 공동으로 '한글대장경을 읽읍시다. 한글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원력으로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고 있다. 현업을 은퇴한 이후 죽는 날까지 경전을 읽겠다는 원력을 세운 불자들이 한글대장경 구입을 희망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 또 한글대장경 법공양 운동에도 동참하는 불자가 늘고 있어 군부대등지에 부처님 말씀을 보내고 있다.

### 도피안사 · 관음사 등 동참

### '대장경 시주' 모임 결성 늘어

#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